밝고 안전한 밤거리 만든다

남원시 가로등 20등 추가 설치 · 이설 등 정비… 교통사고 · 범죄 예방 기여

전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남원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남원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밝고 안전한 밤거리를 만들기 위해 가로등 13등을 설치하고, 낡은 가로등 7등을 이설, 정비하기로 했다. 8월부터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3,000여만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경운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농촌지역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도시지역,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가로등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시민들의 가로등 설치요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장난 가로등은 기동처리반이 즉시 수리를 원칙으로 늦어도 2~3일 내 보수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현재 1만2,714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해 밤거리를 밝히고 있다.한편, 남원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통합관제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료혜택의 기회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취약지역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해 '활기차고 건강한 100세 마을'을 운영한다.

노인 건강 100세 시대 견인차 역할

임실군, 오는 10월 말까지 '의료 방문단' 경로당 순회

임실군보건의료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료혜택의 기회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취약지역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해 '활기차고 건강한 100세 마을'을 운영한다.

상반기에 큰 호응을 얻었던 100세 마을은 하반기 임실읍과 덕치면에 소재한 경로당을 선정해 한의사 3명, 방문간호사 7명, 영양사 1명, 운동 처방사 1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경로당별로 32차까지 순회 방문한다.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2개소를 주 2회 방문해 기초건강검사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 치매예방 교육, 건강체조, 한방진료, 영양교육, 자살예방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바른 건강정보와 교육을 통해 농촌지역의 잘못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운영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 신덕면,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사회교류 단절 독거가구 발굴… 반찬 및 백미 지원 · 안부 확인

임실군 신덕면과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환기, 최종연)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발굴과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청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사회문제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적기준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교류마저 단절된 15명의 독거가구를 발굴했다.

이어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환기, 최종연 공동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임실군 신덕면과 행복보장협의체가 지난 4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환기, 최종연 공동위원장 및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기적인 방문 및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9월부터 '홀몸어르신 찬찬찬 서비스'를 통해 주 1회 반찬지원 및 안부 확인에 나선다.

또한 천사모-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모금한 지정기탁금은 '홀몸어르신 찬찬찬 서비스'를 통해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반찬을 지원한다.

특히 독거가구 연락망을 구축해 정기적인 전화 연락을 실시하고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로 뛰는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협의체 위원, 복지이장단, 사회복지사 등 20여명은 신흥마을 박모(여, 86)씨 등 4가구를 직접 찾아가 백미를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동네한바퀴' 활동을 실시했다.

최종연 위원장은 "앞으로도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가구나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앞장

임실군, 드림스타트 아동 103명에 건강검진 · 안경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임실군이 앞장서고 있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보건의료원과 연계해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10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안경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2, 3,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 신체 진찰 및 상담을 진행한다.

비만도, 혈압측정, 혈액 및 혈색소검사, 간염검사, 안과 및 치과 검진 등을 실시한다.

특히 이상 소견자는 추후 정밀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며 양·한방 전문병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또한 시력저하로 시력보정 및 안경교체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눈건강 지킴이' 사업도 병행한다. 건강검진결과 안경착용이 필요한 아동은 관내 2곳의 안경점에서 안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제5호 태풍 노루(NORU)가 지난 4일 현재시각, 제주 서귀포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태풍이 동반하는 강풍 및 폭우 등에 취약한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태풍 이외에도 우박, 집중 호우, 동상해 피해 및 짐승피해와 화재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다.

가을감자는 9월 8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농업용 시설물 상품과 시설작물 21종, 버섯재배사, 버섯작물(표고, 느타리)은 12월 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한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이다.

감자는 1,500㎡ 이상, 시설작물 21종 및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하우스 800㎡, 연동하우스 400㎡ 이상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의 80%를 제외한 20%의 부담률로 가입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태풍 루사, 매미보다 더 강력한 슈퍼태풍을 경고하는 예측들이 많은 만큼 태풍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청사 주차장 확대 사업

37억여원 투입… 이달말 첫 삽

임실군은 청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대 사업을 이달말 착공한다.

그동안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도로변 주차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3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청 인근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천900㎡ 규모의 주차장을 오는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총 19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를 비롯해 도로경관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옥상에 150KW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그린청정에너지를 공급, 친환경조성 및 에너지 절감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기존 주차공간 253대와 신축으로 191대를 늘려 총 459대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문제가 크게 해소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치료제 없어 예방이 최선"

남원시, SFTS 감염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최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인 등 고위험군의 진드기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을 위해 농작업 시에는 작업복, 장갑, 장화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며, 등산, 벌초, 등 산과 관련된 야외활동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진드기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SFTS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중증열성혈수판감소증후군에 감염되지는 않지만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의해 물린 뒤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40도에 이르는 고열, 그리고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꼭 방문하여 진찰과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문의 288-9700